

4월 8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4월 8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어닝 불안’ 뉴욕 이틀째 급락	알코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1분기 어닝시즌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음. 뉴욕 주식시장이 이틀째 급락세로 마쳤고, 주요 지수는 일제히 2%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다우 지수는 7,800선 아래로 밀려났음. 지난 4주간의 랠리가 베어마켓 랠리라는 분석도 부담이 되었고 퀀텀 펀드의 창시자인 조지 소로스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 달간의 랠리는 베어마켓 랠리로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며 "경기가 아직 반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음. 국제통화기금(IMF)이 전세계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규모 추정치를 4조달러로 늘릴 것이라는 더 타임스의 보도와 제너럴모터스(GM)의 파산 신청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7,789.56으로 전일대비 186.29포인트(2.34%)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61.61로 45.10포인트(2.81%) 내렸으며,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도 815.55로 19.93포인트(2.39%) 밀려났음.
파산 임박 GM 급락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GM은 파산 신청이 임박했다는 보도로 12% 급락하며 블루칩 하락을 주도했음. 로이터 통신은 이날 GM이 파산보호 신청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음. 소식통에 따르면 GM은 파산보호를 신청한 뒤 우량 브랜드로 구성된 ‘새로운(new) GM’과 부실한 부문으로 구성된 ‘낡은(old) GM’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손실 커진다’..금융주 하락	금융주는 잇단 부실자산 경고로 하락했음. 뱅크오브아메리카(BoA, BAC)가 1.6% 내렸고, JP모간체이스(JPM)와 웰스파고(WFC)도 각각 3.4%, 2.6% 밀려났음. 이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21일 발표할 보고서에서 전세계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규모 추정치를 4조달러로 늘릴 것이라고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IMF는 미국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추정치를 3조 1,000억달러로 추정했고, 이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추산된 2조 2,000억달러에서 상향 조정된 것. 유럽과 아시아 지역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은 9,000억달러로 추산했음.
유가 사흘째 하락	국제 유가는 경기후퇴(recession)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와 채고 증가 전망으로 사흘째 하락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5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1.90달러(3.7%) 내린 49.15달러로 마쳤음.

제목	주요 내용
유로존, 4분기 GDP 1.6% 감소	유로존의 지난 4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전분기보다 1.6% 감소했다고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가 7일 발표. 지난 2월 잠정치로 발표한 뒤 지난달 1차 수정치를 발표할 때의 1.5% 감소보다 감소폭이 0.1%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분기간 감소율로는 사상 최대폭
동유럽 시장 낙관론 확산..CDS 하락 랠리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G20 회의 이후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CDS가 크게 하락. G20 회의에서 경제위기에 빠진 이머징 국가 지원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의 수혜가 예상된 것.
세계은행 "中 경제 회복이 亞 지역경제 부양"	세계은행은 일본과 홍콩, 대만, 한국, 싱가포르, 인도를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올해 5.3% 성장할 전망이라고 발표. 지난해 12월 전망치인 6.7%보다 낮아진 수치로 지난해 성장률은 8%. 세계은행은 "중국은 아시아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유망한 곳"이라며 "올해 시작된 중국의 회복세가 2010년까지 지속되며 강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日 증시, 토픽스지수 '과열 경고'	블룸버그통신은 8일 도쿄증권거래소의 토라쿠 지수를 토대로 토픽스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 상승종목과 하락종목의 숫자를 비교해 산출하는 토라쿠 지수는 통상적으로 130을 넘으면 하락 신호로 해석된다. 이 지수는 7일 126.79를 기록해 지난해 5월22일 이후 최고치.
日 자동차업체, 엔화 약세로 한숨 돌렸네	8일 니혼게이지아이신문에 따르면 1분기 엔화가치 하락에 따른 7개 자동차 업체의 환차익 규모가 1,200억엔. 지난 1분기 자동차업체들은 달러-엔을 85~91엔대로, 유로-엔을 110~121엔대로 예상했지만 일평균 환율이 달러대비 93.6엔, 유로대비 122.2엔을 기록, 예상치를 웃돌았음.
외평채 5년물 11년만에 발행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아시아지역의 외평채 5년물 수요가 많아 만기 10년물과 함께 5년물도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5년물 외평채를 발행하기는 지난 1998년 이후 11년만. 정부는 또 투자자들에게 5년물의 경우 T+400bp, 10년물은 T+437.5bp의 예상금리를 제시.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입찰을 받아 2~3일내 10억~2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임.
철강업계 1분기 실적 '암울 그 자체'	8일 철강업계와 증권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오는 10일 1분기 실적을 내놓으며 상장사 '어닝시즌(실적 발표철)'을 시작하는 포스코의 경우 3월 이후 전망치를 내놓은 12개 국내 증권사의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컨센서스)이 5,268억원 선. 이는 지난해 1분기 기록한 영업이익 1조2,740억원에 비하면 절반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이며 가장 비관적인 증권사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4,089억원으로, 4,000억원선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임.
GM대우, 2조 3,000억원 파생손실..부채비율도 700% 돌파	7일 GM대우가 금감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파생상품 평가손실 및 처분손실이 각각 1조 3,228억원, 1조 75억원을 기록. 반면 파생상품 평가이익과 처분이익은 각각 2,006억원, 1,763억원에 그쳤음. GM대우 관계자는 "지난해 환율 급등으로 수출대금에 대한 선물환거래에서 큰 손실을 입은데다, 오는 2010년까지의 예상 손실도 선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